

**김명자 환경부장관, 붉은악마에 감사패**

김명자(金明子)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 11일 환경월드컵성공의 주역인 붉은 악마 회장단을 만나 감동적인 응원 문화를 창출한데 대해 치하하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장관은 “이번에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의 환경월드컵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붉은 악마의 열정적 응원과 절제된 청결 및 질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붉은 악마가 다이나믹 코리아, 클린 코리아”의 이미지를 세계에 전달한 것에 감사한다”고 회장단을 격려했다.

**환경부 인사 (6.26)**

- ▷시설서기관 오종극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 ▷시설서기관 손진식, 환경사무관 정덕기, 환경주사 백운봉, 환경주사 강복규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 ▷화공주사보 신현일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 ▷기능9급 사무원 이옥유 유역제도팀 지원근무를 명함
- ▷서기관 방의석 폐기물자원국 생활폐기물과 근무를 명함
- ▷행정사무관 조병옥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근무를 명함

**소니사, 환경보고서 2002 발행**

소니사는 2001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수행한 그룹 전체의 사회적 측면과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 전체를 정리한 [소니사 환경보고서 2002]를 발행하였다.

1994년부터 수회에 걸쳐 발행해 온 환경보고서도 작년부터 매년 발행하게 됐다. 이번 보고서는 소니 그룹 공통의 전체적인 기본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2000년 10월 제정한 [소니 환경 비전]에 따라 2010년까지 환경효율을 2배로 높인다는 목표에 대한 통년의 실적을 처음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업무와 설명 책임(accountability)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부터 사회 환경 보고서 2002의 표제대로 소니와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

모두와의 관계에 대해 새로이 정리한 것을 첨가, 게재 내용을 보다 확충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경제·사회·환경의 관점에서 종래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활동 보고와 경과, 실적 보고를 첨가하였으며 고객, 주주, 커뮤니티와의 관계 및 준법, 인사 등의 체계에 대해서도 폭넓게 소개하고 있다.

이 사회 환경보고서는 희망하는 사람에게 책자와 CD를 배포하며 인터넷(<http://www.sony.co.jp/eco>)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보고서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에 대하여 데이터 집과 사무소 단위의 환경보고서 등의 자세한 정보도 볼 수 있다.

**수질평가방법 선진화 추진협의회 발족**

시민단체, 학회 추천 전문가(60명)로 협의회를 구성(4개 분과)

지난 6월 21일 국립환경연구원 강당에서 수질평가방법 선진화 추진협의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발족했다.

환경부는 낙후된 수질평가방법을 선진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학회,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국내전문가 60명으로 「수질종합평가방법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 향후 수질평가방법 선진화에 기여를 하게 된다.

**청정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개최**

지난 6월 19일(수)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생산 확산을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청정생산(Cleaner Production)은 “생산공정에서 원천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기술”로 산업계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청정생산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단계로 청정생산의 확산을 위하여는 정부의 기술개발투자 확대와 기업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